

### 김일성주석은 20세기 불세출의 위인

####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김일성주석 각하의 한생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 인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세계피압박민들의 자유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고귀한 한생이었다.》

이것은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예절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이 보내어온 축전의 한 대목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불세출의 위인을 모시었던 영광의 시대를 긍지높이 추억하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것은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해마다 4월 15일이 오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선을 제패하려던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시어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는 소박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주석은 주체조선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영웅이다. 그이께서는 조선식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였으며 전후 빈터우에서 조선을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시었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 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넓고 봉건적인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는 강위력한 공업국가로 전변되었다.

조선의 자주정신과 결한 반제립장, 모든 평화에 호력량과의 단결로 일관된 대외정책적리념들

은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오늘도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미일제국주의와의 두차례의 혁명전쟁, 두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승리와 업적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진전을 위하여 한생을 다바치신 20세기의 불세출의 위인인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우리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할것이다.

본사기자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경축준비위원회 등을 결성하였다.

김일성주석탄생 105돐경축 벨라리아준비위원회, 위대한 김일성주석탄생 105돐경축 에짚트준비위원회,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경축 스페인준비위원회, 김일성주석탄생 105돐경축 베넌전국준비위원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탄생 105돐경축 영국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타이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페루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로모니아전국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프랑스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모로니아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스웨리에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쓰르비아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인도네시아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

원회, 태양절경축 에스빠냐준비위원회, 태양절경축 우간다준비위원회 등이 결성되었다.

베넌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새 사회건설을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회세의 영웅, 탁월한 정치가, 뛰어난 군사전략가이시라고 격찬하고 오늘 또 한분의 결출한 위인이신

존경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의하여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탄생 105돐경축 준비위원회들이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소련공산당산하 정당, 단체, 도이쉴란드공산당, 로씨야련방공산당 아무르주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들에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개막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룡구, 배구, 탁구, 권투, 레스링을 비롯한 수십개 종목의 경기들이 평양시와 남포, 평성, 사리원시 등지에서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3일 청춘거리 룡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김일국체육상은 개막사

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이 강원도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하면서 모든 선수, 감독들이 훈련 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능력을 총폭발시켜 경기마

다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 상징기발이 계양되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기관차체육단과 평양체육단사이의 여자 룡구경기가 진행되었다.

###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었다.

첨단기술개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전에는 국가과학원, 전력공업성,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과 각 도(직할시) 과학기술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2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농민, 3대혁명소조원, 교원, 연구사, 학생, 박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탄,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등 29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는 축전은 지난 기간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기간에 새 기술, 새 제품봉사도 하게 된다.

개막식이 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계희남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은 개막사에서 이번

축전은 올해의 전민총동격전에 펼쳐나선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북돋아주고 세계를 향하여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축전을 통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 참담하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 보았다.

본사기자

##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성황리에 진행될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선전화들은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성대히 경축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라는 글발과 부류별축전명칭이 씌여져있는 선전화들에는 축전마크가 새겨지고 축전기간이 밝혀져있다.

본사기자



## 관계개선과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박근혜역도는 집권기간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여 《대통령》 직파면에 이어 감옥에 끌려가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끌어내린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모든 적폐를 다 청산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합치고있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집권 4년간 박근혜역도가 해놓은것이란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민적 악정착에 없으며 그로 하여 민심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특히 역도년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은 온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은 지난기간 《압박과 대화의 병행전략》이니,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유도》니 뉘니 하는것들을 떠들어대며 민족의 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고 북남관계를 사상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었다.

이에 대해 얼마전 서방의 한 언론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박(정권)의 제일 큰 실책은 북조선을 이라크나 유고슬라비아로 본 것이다. 군사적위협을 가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로 압박하고 세계여론을 오도하여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키면 북은 회기를 들고 대화에 나설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제를 단다면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이 이미 이 방법에서 맥을 뽑고 기권했다는것이다. 하다면 박(정권)에 묻고싶다. 자기의 능력이 미국을 초월

할수 있겠는가...》

공화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치, 군사강국이 아니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도 당당히 맞서며 언제나 승리만을 새겨왔다. 한갓 미국의 주구에 불과한 박근혜역적패당의 그 무는 《제재》와 《압박》이요, 《응징》과 《보복》이요 뉘이 하는것들은 강아지의 코김소리만 큼도 여기지 않는 공화국이다.

제 처지는 불출 모르고 감히 《대화》 제재의 병행》론을 떠들어대며 《북은 인차 붕괴된다.》, 《조금만 더 조이면 기필코 손을 들고 투항해나설것이다.》고 너두리를 쉼쳐대던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차레진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정책

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박근혜의 만고죄악을 지탄하면서 민족의 통일지향을 짓밟은 죄악 하나만으로도 무서운 징벌을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 《더이상 못갈이다.》라고 요구해나서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추종하는 극악무도한 대북제재늘음과 북남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대화는 결코 량립될수 없다.

회세의 동족대결광인 박근혜역도가 만민의 저주속에 손에 수갑을 차고 구속되었듯이 범죄적인 동족대결정책도 수치스러운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 인민은 오늘도 주석님을 노래합니다

머지않아 성황리에 막을 열게 될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할 출연자들의 열의는 여간 아니다.

국립민족예술단을 찾았을 때였다.

연주가, 가수들이 노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를 곡상에 맞게 형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슬 내리는데 또 어데 가시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

이 노래를 공화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부르면 부를수록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도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심에 젖게 하는 노래이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평생도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수령,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그이께서 일찌기 《드나》의 강령에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를 세울것을 투쟁목표로 내세우신것은 그 결심을 반드시 현실로 실천하시려는 확고한 신념의 분출이었다. 한생의 그 투쟁목표를 위하여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시였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강그리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일독립의 오늘 강국의 령마루에 힘차게 내달리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애국애민의 헌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국가와 인민을 령도해오신 나날은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동서맹적이 조미대결로 압축되고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공세가 극도에 달하였던 엄혹한 나날 장군님께서 탁월한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오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은 천백배로 다져지고 국방공업은 그 어떤 첨단무장장비도 마음먹는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병기창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오성산의 험한 칼벼랑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 판문점과 철령, 대덕산과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최전연, 최전방 초소로부터 수많은 전호가와 진지들에 기 울이신 장군님의 가장적 국적이요 회생적인 헌신이 어려어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

길에 나서시였을 때에도 인민을 국가와 후방, 정규군으로 보시고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것이라 하는 인민중시의 믿음과 사랑으로 전민족을 불러 일으켜 항일대전을 벌리시였다.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신 그이께서 그리운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기도 강선의 로동자들을 먼저 찾으신것도 인민의 애국심을 발동하여 새 조선을 하

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서였다.

주석님께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인민을 위한 혜택과 시책을 마련하시였기에 그이의 현지도의 발자취는 공장과 건설장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북변의 탄광마루로부터 동해기슭의 작은 포구, 남단의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새겨져있다. 전후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중공업의

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곁입없이 전선사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신 그이의 교시는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무적강군으로 위용강화된 인민군대의 위용과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가진 공화국의 모습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천신만고를 헤치신 위대한

## 탁월한 령도, 빛나는 현실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그 나날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확신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계와 성단무장장비도 마음먹는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병기창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오성산의 험한 칼벼랑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 판문점과 철령, 대덕산과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최전연, 최전방 초소로부터 수많은 전호가와 진지들에 기 울이신 장군님의 가장적 국적이요 회생적인 헌신이 어려어있다.



항해남도안의 협동농장을 현지도하시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도 안온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평양과 자강도 등 방방곡곡의 건설장, 공장들을 현지도하시면서 현실속에서, 인민들속에서 무르익히신 사색과 탐구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언제나 인민대중을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며 모든 일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하여야 한다는것이 인민에 대한 주석님의 절대적인 믿음이고 신조였다.

인민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는것이 아버지수령님의 평생 뜻이였고 가장 큰 소원이였다. 명절날, 휴식일도 따르 없이 늘 현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지어 1년에 한번 찾아오는 자신의 생신날에도 농장길,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신 주석님이였다.

가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그 어떤 강적도 단말에 제압할수 있는 무적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져있다.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오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위력한 주체란, 주체무기들을 개발완성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자위적국방력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완벽하게 되었다. 공화국을 수 소란까지 보유한 최강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과학을 지관차로 부강조는 력사적기간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결출한 령도자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의하여 즐기치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력에 시험포전을 만들고 농작물의 생태학적특성과 비배관리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농사에 일반화하도록 하신 사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수만 있다면 국가주석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도하는 고문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야기 등 주석님께서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기 울이신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의 령도는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분투하시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최상의 높이에 실현해 나가는 탁월한 령도이다.

세계 정치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며 그처럼 짧은 기간에 국가건설과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류례없는 비약과 전변을 안아오신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드느니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무한대한 창조적 열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공화국이 반제반미대결전과 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도록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기를 주름잡는 만리마시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펼쳐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전체 인민들은 회세의 천출영인재를 모시며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즐기치게 나아갈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는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며 강성번영하는 공화국의 힘이라는것을 현실은 웅변해 주고있다. 본사기자 정무림

력으로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고 달려오실수 있는것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반드시 풀어주시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신데 있었다. 세상에는 위인들이 자기의 목적을 세우고 먼 길을 걸은 일화들이 적지 않지만 주석님과 같이 인민을 위하여 떠나신 걸음을 한평생 멈추지 않으시고 수천수만리길을 걷고 또 걸으신 레는 없다.

본사기자 리 실

지난 3월말 평양국제 축구학교 제1기 졸업식이 있었다.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이 양성되어 교문을 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마련된 축구선수후비양성기지의 첫 졸업생들이다. 체육강국건설을 구상하시고 온 나라에 전례없는 체육열풍을 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피심은 한 로동자가 가정에도 미치지였다.

다섯해전 9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의 창천거리에 새로 입사한 한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부부에게 기념품도 주시고 축배도 부어주시며 새집들이를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 식구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가정의 쾌락도 물으시며 답사하시는 동안 중학생인 아이들이 집에 들어섰다. 축구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걸음이였다. 너무도 뜻밖인지라 만이운동복을 입은채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그를 반가이 맞으신 원수님께서 두볼을 어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인민들은 절절히 념원하였지만 위대한 주석님께서 자신의 로고를 오히려 락으로 여기시였다.

《언제면 그 언제면 편히 쉬시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고 인민들은 노래에 담아 간절히 아뢰였지만 그이께서는 세월의 눈을 다 맞으시면서 인민의 집을 짓고 인민의 쌀독을 채우고 인민의 옷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굶은 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쉬고 일하고 또 일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주석님의 현지도의 길에는 자동차가 다닐수 없는 머나먼 산촌의 오솔길도 있었고 전화의 나날 총포란이 비발치는 위험천만한 길도 있었고 눈비내리는 진창길도 있었다. 그이의 현지도는 인민적령도의 빛나는 귀감이다. 그이께서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이어가신 현지도의 길은 장장 57만 8 000여 km(144만 5 000여리)에 달한다. 현지도단위수는 무려 2만 600여개를 헤아리고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실과 수자이다.

그 모든것이 노래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의 구절구절에, 은은한 선율이 그대로 담겨져있어 노래의 여운은 그처럼 끈적이다.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 강렬한 뜻깊은 4월의 봄날에 사 람들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실

루만져주시고는 차근차근 물으시였다. 어느 학교에 다니며 어디에 갔든가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축구소조에 갔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원수님께서 축구를 좋아하는가 다시금 물으시였다. 축구를 좋아한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 축구를 잘하는가고, 자신과 한번 축구를 해보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싱긋 웃음을 담은 그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꼭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원수님께서 만아들이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는데 결의가 좋다고 대견해하시며 적극 지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은 로동자가정의 만이는 자기의 지망과 희망대로 조선체육대학 학생이 되었고 원수님의 당부대로 체육강국건설에 한몫 할 축구전문기술을 연마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정무림

### 앞날의 유망한 축구선수

우리는 얼마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았다. 흰눈처럼 하얀 타일들로 산뜻한 감을 안겨주는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깨끗이 포장한 구내길에 들어서서 우리의 눈앞에 제일 먼저 안겨온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었다. 우리가 어린이식료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자이크벽화 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차성철기사는 장우리의 공장은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공장이다, 정말이지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 오늘과 같이 자동화, 무인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식료품공업의 표본공장으로 일떠설 수 있었다고 하면서 통합생산지령실로 안내하는것

#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하며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아서 -

이었다. 그곳에서는 생산공정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고 공정분석, 품질관리, 무균무진화체계를 통합조종관리하고있었다. 주체 104(2015)년 11월 공장을 찾으신 고영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알아보시고 최상의 수준이라고, 지난 시기 다른 단위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까지 최량화, 최적화할수 있는 다차원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자랑할만

하다고 치하하시였다. 현시관을 통해 생산현장의 공기속에 있는 균의 개수까지 종합, 분석,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화된 공장의 면모를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이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콩우유가 쏟아져 나오는 콩우유가공생산현장을 돌아보았다. 원료 투입, 계량, 려과, 배합, 포장,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그곳에서 국산화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콩우유의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진공탈취기며 지난 기간 생산

자들이 손으로 용기를 세척하던것을 다 자동화, 무인화하여 지금은 감시만 하고있는것, 콩우유자동주입기를 통해 련이어 나오는 우유통들과 그 통들에 마개를 덮는 로보트의 작업과정, 이적로보트가 8개의 커다란 우유통을 한꺼번에 들어올려 척 쌓는 생산공정은 그대로 국산화에 기초한 현대화의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어 콩신젓공장, 영양암가루직장, 콩우유가루직장, 에기젓가루직장들도 돌아보았다. 공장 종업원들이 국산화된 직장이라고 부르는

콩신젓직장에서는 생산공정을 3명의 노동자가 조종하고있었고 영양사랑작업반에서는 여러종의 사랑제품들이 자동화된 흐름선을 따라 쏟아져나오고 있었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암가루직장 남새가루생산현장에 있는 열풍건조로를 보시고 잘 만들었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고 하시며 국산화를 정말 잘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 생산공정이라고 할것없이 모든 생산공정이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자동화, 무인화되어 로동이 그대로 노태가 된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이 무궁무진하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콩싸이로조종실과 종합분석실도 찾았다. 콩싸이로조종실에서는 싸이로에 보관하는 콩의 수분이 올라가면 큰배를 제거하고 싸이로에 넣어주고있었다. 뿐만 아니라 6층으로 된 콩정선장의 콩을 정선하고 돌을 분리하며 타개어 계량하는것까지 자동조종관리하고있었다. 또 종합분석실에서는 수십여대의 분석실비로 계기분석, 물리화학분석, 미생물분석을 진행하고 제품의 위생학적으로 요구에 맞게 균검사도 진행

하고있었다. 종합분석실에서 만난 진성심 종합분석실장은 우리에게 벽에 설치한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컴퓨터에 현시된 균들의 상태를 지금 영상화면을 통하여 관찰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영상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사장은 공장의 현대화를 돌아보시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분석체계까지 세워 제품의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것만큼 이제는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고,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고,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공장의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업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불려주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 는 도덕의리에 관한 문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 만발하는 화창한 봄날이 왔다. 며칠전 나는 인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랑만소리 넘쳐나는 풍치수려한 룡라인민유원지의 미니골프장을 찾았다. 각이한 기하학적모형의 골프주도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 나무들레에 놓여있는 특색있는 원형의자들로 조화를 이룬 미니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치고나오는 한때의 사람들이 떠들썩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내가 이겼어》, 《확실히 골프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 《눈에 익고 손에 실다고 TV로 보는것과는 다른데》... 흥에 겨운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니골프장입구에 이르니 안내원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골프장에 오신 단골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구와 승부를 겨루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속에서 안내원처녀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반가움을 표시하였던것이다. 그러자 마치 경기에 나서는 선수를 보리라도 하듯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나에게로 쏠려왔다. 순간 나는 당황스러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원래 나는 미니골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소문

들고 몇번 와 골프를 쳐보고는 점점 그에 재미를 들여 이제는 휴식일마다 자주 이곳을 찾곤 한다. 그러니 안내원처녀들이 나를 미니골프를 즐겨하는 단골손님으로 여기고 있는것이이다. 단골손님. 처음 듣기에는 거북하였지만 그 말을 새길수록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최근 몇해사이 사회

《신사경기》라고 불리는 골프 역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꿈조차 꿀수 없다. 그러니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그 숭고한 인민사랑이 활짝 꽃피는 행복의 무아경, 별천지속에 근로하는 우리 인민모두가 서있는것이다. 문명을 누리는데서 황금만능과 개인주의가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 많고 권세있는 자들만이 《단골손님》이 되고있지만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나와 같은 평범한 인민들모두가 단골손님이 되고있으니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미니골프장에 들어섰다. 미니골프장안에는 나와 같은 단골손님들이 짝차있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김순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번듯하게 일떠선 려명거리가 완공을 앞두고있다. 하늘을 찌를듯이 솟구쳐오른 70층살림집으로부터 55층, 50층의 살림집들과 그리고 수십동의 고층, 다층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체신소들...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의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에네르기절약형거리라 하는것이 첫 눈에 안겨온다.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는 태양빛유도조명체계, 빛선반향방부하감소기술, 소리 및 빛수감식조명기술, 지열을 리용하여 동력소비를 낮추는 지열환기기술, 지열마루난방기술, 지열냉난방체계를 비롯한 에네르기절약기술들이 광범히 도입되었다. 특히 건물의 외벽에 폴리스티롤보온재를 리용하였으며 만장충막과 지하의 외벽, 복도와 면한 벽들도 철저히 보온하여 열손실을 극력 낮출수 있게 시공되었다. 한편 자연채광을 설치하여 베란다광선의 햇빛받는 면을 보온하고 태양열흡수력을 높이며 음이온을 발생시키도

를 하기 위해 고순도전기석분말을 첨가한 짙은 색계열철감으로 마감하는 광선형외도식태양열난방기술도 도입되었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복도와 계단, 승강기실 등을 비롯하여 장소들과 방들에 소리 및 빛수감식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전기에네르기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생물생육상태를 컴퓨터로 자동조절하는 수경재배기술, 비물리용체계기술, 얇은층지붕복합화벽면복합기술과 같은 녹색건축기술은 려명거리를 조경기술, 지열을 리용하여 동력소비를 낮추는 지열환기기술, 지열마루난방기술, 지열냉난방체계를 비롯한 에네르기절약기술들이 광범히 도입되었다. 특히 건물의 외벽에 폴리스티롤보온재를 리용하였으며 만장충막과 지하의 외벽, 복도와 면한 벽들도 철저히 보온하여 열손실을 극력 낮출수 있게 시공되었다. 한편 자연채광을 설치하여 베란다광선의 햇빛받는 면을 보온하고 태양열흡수력을 높이며 음이온을 발생시키도

러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대대적으로 도입된 얇은층지붕복합화벽면복합기술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지붕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잔디를 심으면 여름에는 햇빛을 방지하여 건물의 내부온도가 올라가는것을 막고 겨울에는 반대로 건물내부에 대한 보온작용을 하여 내부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준다. 뿐만아니라 나무들과 잔디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므로 환경보호에도 아주 좋아 이기술의 도입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따뜻한 봄계절에 들어

서면서 지금 새로 일떠선 수십개 호동의 살림집들과 련결봉사망, 공공건물들의 지붕에 심은 나무들과 잔디들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나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실로 에네르기절약 및 녹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야말로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서 내놓고 자랑할만한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거리이다. 며칠후면 완공의 레프를 끊게 될 려명거리, 이제는 이 땅에서만이 아닌 행성의 어디서나 자주 떠오르는 이름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 에네르기절약형, 녹색형의 거리



단마르크의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 파는 아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행복한 생활, 불과 세가치의 성냥불길속에서 소녀는 자기의 소원을 그려보았다.

네번째 성냥가치를 태우며 소녀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올라간다.

《성냥 파는 아이》의 이야기는 19세기의 동화로 끝났듯이 아니었다.

과란 많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지구상에는 얼음우에 던져진 씨앗과 같은 현대판 《성냥 파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다.

배움의 교실이 아니라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어린 가장들, 분쟁의 회오리속에 학습장과 연필대신 총과 수류탄을 잡아야 하는 소년들, 생계를 위해 꽃말을 피우지도 못한채 짓밟히는 소녀들...

《나》 하나만을 위한 어른들의 탐욕에 아이들이 희생물로 되고있는 것이다.

《자유의 천국》이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된 나라들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 미래가 밝은 땅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것은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으며 10대의 소년소녀들이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것은 다반사라고 한다.

이남땅에서만 하여도 당국이 정한 《4대악》중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첫번째 대상은 모두 아이들이다.

아버지가 이북말을 성회통하고 이북어머니가 자식을 학대하고 지어 자기의 친자식을 굶기고 때리다못해 죽은 자식을 칼랑쳐 매장하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상상 못할 참혹상을 빚어내는것이 비밀비재하다.

수백명의 아이들을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한 《세월》호참사는 이남사회의 후대관을 보여준 축소판이라고도 할수 있다.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혼란과 암울의 현실이 지구상의 곳곳에 지배한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시들고 병들고 이질화되어 미래가 죽어가고있는 것이다.

문명의 21세기에 사는 아이들도 옛 동화의 소녀

처럼 성냥을 켜들고 자기의 소원을 빌어야 하고 죽어서나 《천국》에 올라갈수 있는가.

세상 모든 아이들이 구김살 한점없이 활개치며 자라는 그러한 《천국》은 동화이야기의 《하늘나라》에서나 그려보아야만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아이들의 《천국》을 보려면 북에 가보아야 할것이다.

북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운다.

북에서 울려나오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이라는 말들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나라의 정책이고 제도전반에 펼쳐진 시책이며 사회적기풍이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콩우유차를 《왕》차라고 부르고 아이들만을 위한 사랑의 궁전인 소년궁전이 나라의 곳곳에 몇쟁이건축물로 일떠서있다.

모든 설비와 인재들이 그쁘히 갖추어진 소년궁전들에서는 아이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희망과 소

질에 따라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운다.

소년궁전만이 아니라 부모모임은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들이 소년궁전 못지 않게 아이들의 궁전으로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다.

사람들은 흔히 가장 큰 설움에 대해 말할 때 부모없는 아이의 설움을 첫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부모없는 아이는 있어도 부모없는 아이는 있을수 없다는것이 원아들에 대한 북의 관점이다.

원아들 모두를 나라에서 맡아 키워준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제도는 또 어떠한가.

산골마을의 몇명의 아이들을 위해, 섬마을의 2명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선생이 찾아가는 나라가 바로 북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온 나라의 아이들을 국가가 무료로 12년동안이나 맡아 가르치고 키워주는 아이들의 나라, 배움의 나라이다.

아이들의 교과과 교과서, 학습장도 나라에서 보장해준다.

이런 나라, 이런 사회제도이기에 아이들은 《세상에 부럽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를 목청껏 웨치는 것이다.

지금 세인은 북의 현실을 황당하게 외곡하여 비방하는 미국과 서방세계

의 악선전에 젖어있다. 그 악선전이 얼마나 저급하고 비열했는지 서방의 어떤 사람들은 북에 대한 방문을 《탐험》으로, 일종의 《모험》이라고까지 하였다.

북에 대한 체질적대와 불신으로 가공되고 날조된 작품을 류포시키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그릇된 선전을 그대로 복사한 편견의 결과였다.

하지만 북을 방문한 동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는 조선의 정책은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라고.

북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원천은 위대한 령도자들의 숭고한 후대관에 기초하고있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 제일 좋은것을 후대들에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선 후대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위인들의 고귀한 금언들이다.

지난 2월 2일호 북의 《로동신문》에는 북의 최고령도자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교를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황당하게 외곡하여 비방하는 미국과 서방세계

최고령도자님의 주위에 울고 웃으며 모여든 아이들, 단란한 한가정의 아버지와 자식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예로부터 아이들은 거짓을 모른다고 전해왔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들의 눈물에는 비애가 없었고 그들의 웃음에는 거짓이 없었다.

행복의 눈물, 행복의 웃음이었다.

북의 최고령도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얼마나 가슴울리는 것인가.

은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 조선의 기풍으로 되었다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소리라고,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그들이 설움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초등학원의 교육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아이들을 강성조선의 주인공으로, 미래의 기둥으로 훌륭하게 키우시려는 아버지의 다심한 마음이고 산악같은 신념이며

실천의 의지였다. 최고령도자님의 그 사랑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꽃피나 북은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들의 《천국》으로 된 것이다.

무릇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잡을 날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자식이 많은 부모는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북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걱정을 《행복한 걱정》이라고 한다.

수백만명의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수억만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기에 북을 방문한 외국의 한 인사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조선의 어린이들은 이 세상 온갖 만복을 타고난 행복동이다. 조선의 학생들이 정말 부럽다.》고 토로하였다.

이런 나라를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 맞고 할 것인가.

지금 인류는 기후문제, 피난민문제, 분쟁문제 등 많은 난문제에 봉착해있다.

그 희생물이 바로 아이들, 우리의 후대이고 인류의 미래이다.

인류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미래를 죽이고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세계에 말하고싶다.

진정으로 지구의 오늘과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천국》, 북에 한번 가보시라고

재중동포 박미자



지난 1일은 개학날이었다.

해마다 맞고 보낸 날이지만 올해의 개학날은 나에게 있어서 류달리 잊지 못할 날이었다. 막내아들이 소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올해 4월 1일은 공화국에서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뜻깊은 날에 아이들이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섰으니

## 단상

그 기쁨이야말로 남다른것이 아니겠는가.

이날은 늘쌍 할머니의 지청구를 듣고서야 깨어나 하던 아들에게 새벽부터 깨어나 교복을 입어본다. 책가방을 싣다 분주함을 피워냈고 그 바람에 온 집안이 덩달아 개학준비로 들쭉거렸다.

어느덧 나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온 가족의 배움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책가방을 메고 기쁨에 겨워 토끼뽀를 하며 앞서는 아들을 보느라 마치 내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나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심정에서 내가 들고 가겠으니 책가방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들은 《일없어요, 하나도 무겁지 않네요 뭐.》 하

면서 한사코 제가 메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문득 나는 아들에게 책가방에 깃든 사연을 다 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방으로 말하면 평양가방공장에서 만든 《소나무》표 책가방이었다. 아동영화 《소년장수》그림이 새겨진데다가 해면으로 등받이가 한 것이 질도 좋고 아

## 책가방의 무게

이들의 동심에도 꼭 맞게 생겼다.

또 그 가방안에는 그대로 우리가 만든 민들레 학습장이며 자, 크레용, 수지연필, 색종이, 필갑까지 차곡차곡 갖추어져 있었다. 책가방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밤에 잠때에도 책가방을 꼭 끼고 자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가방에 얼마나 뜨겁고도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지를 어찌 다 알랴.

생각해보면 지난 1월 새로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었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가방을 메고 좋아라 학교로 갈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오늘을 잊을것 같지 못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새 가방에 몸소 《소나무》라는 이름까지 달아주시었으니 여기에는 소나무의 푸르고 억센 기상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소나무처럼 굳세게, 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책가방의 무게를 어찌 학교용품의 무게로만 재랴.

그속에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담겨있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가기를 바라는 나라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대가 담겨져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메고가는 책가방이 가볍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기대와 당부가 담겨진 책가방을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메고 가기를 바랬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아들은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섰다.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2동 김금연

## 새로 나온 기술고급중학교들

공화국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의 새 학년부터 전국각지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수업을 시작하였다.

기술고급중학교는 학생들이 살고있는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따라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해당 분야의 기초기술지식과 기능을 높은 수

준에서 소유할수 있게 하는 중등교육기관이다.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내용을 취급하면서 자기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는 금속, 석탄, 전력, 수산, 농산, 축산, 파수, 화학부문에 대한 기술과목을 배워주게 된다.

평양시에는 사동구역 장천기술고급중학교, 삼

석구역 원흥기술고급중학교, 강동군 후령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왔다.

철의 기지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소가 있는 지역에는 천리마구역 천리마기술고급중학교, 송림시 동송기술고급중학교가 나오고 대

규모전력생산기지가 있는 북창군에는 북창군 통흥

기술고급중학교가 나온것을 비롯하여 주요공업지구들과 농촌지역, 수산기 등에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는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왔다.

올해 새 학년도부터 전국각지의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 첫 수업의 종소리가 울려들었다.

본사기자

## 즉석에서 맛보는 여러가지 초밥...

### — 평양 초밥 전문 식당에서 —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을 따라 걸노라면 사람들로 흥성이는 아담한 2층짜리 건물을 볼수 있다. 얼마전에 문을 연 평양초밥전문식당이다.

초밥이라고 하면 아직은 귀에 설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있다는 생각이 우리도 이 식당에 들러보기로 하였다.

특색있는 장식의 은은한 바다타일이며 현란한 빛을 뿌리는 천정무리등, 시원한 바다가의 아름다운 경치를 형성한 풍경화는 칙보기에도 여느 식당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었다.

《우리 초밥전문식당에서는 다랑어, 연어, 문어와 같은 물고기들과 버섯, 김, 남새 등으로 만든 갖가지 초밥들을 손님들에게 봉사해주고있습니다.》

우리를 반겨 맞으며 이곳 식당의 최은희주배인 이하는 말이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1층식사에 들어섰다. 1층에는 생선초밥, 결들이초밥(초밥에 2~3가지

수산물과 고기류, 남새 등을 보조재료로 하는데 가장 맛있는 초밥은 제철에 나오는 생선한 재료로 만든것입니다.》

주광철주방장이 하는 말이였다.

그는 평양초밥전문식당에서는 수십가지나 되는 초밥들을 봉사하고있는데 그 맛들이 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들로 조화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것이였다.

이어 우리는 가족끼리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여러 가족식사실들과 손님들이 주문한 요리들을 벨트로 나

르는 벨트봉사탁이 있는 2층도 돌아보았다. 컴퓨터로 신청한 초밥들이 주방과 련결된 벨트에 실려 출출이 나오는 광경은 볼만했다.

우리는 이 식당을 찾은 사람들의 걱정의 목소리들도 들을수 있었다.

《식당 내외부의 꾸밈새도 그렇지만 음식맛도 최고이고 봉사성도 최고이다.》

손님들이 남기는 구수한 평가들은 인민을 위한 봉사를 특색있게 진행하고있는 이곳 식당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본사기자 박철남



# 굴종과 전쟁을 구걸하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론》

지금 남조선의 박근혜 당들은 과연, 구속된 박근혜를 엄하게 징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한미동맹강화》에 대해 요란히 떠들고있다.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은 박근혜가 집권기간 집요하게 제창해온 반민족적, 반통일적계변이다.

물론 역대 남조선집권 세력들도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떠들어오지 않은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 어느 《정권》보다 상전과의 《동맹》을 존망의 기반으로 여기며 동족보다 외세인 미국에 명줄의 혈맥으로 이어놓고 매국배족의 역겨운 자취를 새겨왔다.

권력의 자리에 앉기 바쁘게 《정치창녀》의 본색 그대로 미국상전의 품에 안겨들어 미국의 《은혜》를 구구히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입이 닳도록 구걸하였고 집권전기간을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을 내걸고 미국의 대조선침략의 총견, 대아시아전략의 돌격대로 앞장서왔다.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그 실현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것으로 되어야 하것기에 박근혜가 미국의 위상소리 듣고 따랐고 그 잔여세력이 지금도 떠들고있으며 20세기의 구페로 남조선사회를 지배하는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에 대해 다시

론하지 않을수 없다.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은 남조선을 미국에 영구히 내맡기려는 사대역적들의 식민지합리화론, 매국배족적계변이다.

원래 《한미동맹》이라는것은 미국이 《동맹》의 허울밑에 남조선 《정권》을 노복으로, 하수인으로 부리고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기 위해 조작한것이였다.

1950년 조선전쟁에서 미국력사상 전후후무한 참패를 당한 미국은 전후 남조선을 자기의 군사기지로서, 군사적부속물로 더욱 예속시키며 남조선에서의 친미사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1953년 8월 남조선 《정권》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때로부터 《동맹》이라는 간판밑에 남조선 《정권》은 미국의 철저한 꼭두각시로 되었고 남조선은 미국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미국경제부흥을 위한 자원탈탈지로, 미국의 쓰레기잉여상품의 처리장으로 더욱 전락되였다.

20세기에다 그러했지만 미국이 자원을 내라면 자원을 내고 시장을 개방하라면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미국이 대포발을 내라하면 청장년들을 침략전선에 밀어넣어야 하는것이 21세기의 현대판식민지인 남조선이다.

더우기 남조선강점 미군의 《치외법권》을 담보하는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남조선은 말그대로 미군의 범죄서식장, 폐륜폐약의 활무대로 변

질되였다. 2002년 두 녀학생살해 사건이 보여주듯이 남조선인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겨도 범죄자를 처벌할수 없고 피해자인 인민들이 아니라 범죄자인 미군을 변호하고 보호해야 하는것이 《행정협정》에 목매인 남조선 《정권》이다.

《한미동맹》의 수십년 치욕사에 남조선 《정권》은 언제한번 미국과 어깨나란히 해본적이 없으며 오히려 섬길것은 다 섬기고 퍼줄것은 다 퍼주고 도둑 주고 뺨맞는 창녀처럼 항상 미국으로부터 하대를 받고 상전의 눈치만 보며 아랫다리를 떨며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친미사대세력, 특히 박근혜 《정권》은 20세기의 오물인 《한미동맹》을 력설하며 오히려 계속 유지, 강화해달라고 미국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더욱 붙잡아왔다.

박근혜의 파면, 구속으로 최악의 위기가 닥치자 박근혜 《정권》의 잔여세력은 《안보》를 고아대며 미국상전에게 《동맹강화》를 구걸하면서 새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의 지향에 정면도전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을 앞으로 미국의 《51번째주》로 내맡기고 저들은 영원한 식민지노복으로 살겠다는 더욱더 용납할수 없고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매국배족, 사대역적의 망동인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자주성을 지향

하는 오늘에도 상전과 하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면사포를 씌운것에 지나지 않는 《동맹》의 멍에를 계속 쓰고있겠다고 하는것이야말로 종미에 환장한자들의 쓸개빠진 뇌두리가 아닐수 없다.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은 민족화합, 민족단결, 민족통일을 전면부정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계변이다.

반만년의 력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이 장강 수십 년동안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된것은 침략적인 외세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통락하였기때문이다.

북과 남의 리념과 제도, 체제의 차이가 있을수 있어도 통일로 향한 지향보다 쿨수가 없고 외세와의 《동맹》이 민족대단합의 힘보다 강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면 보다 위대하고 강대한 민족, 강국이 될수 있다는것은 세계도 인정하는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친미보수 《정권》은 혈육인 동족보다 외세인 미국을 더 믿으며 동족대결, 민족분열의 미친 칼춤을 추어왔다.

박근혜가 취임후 미국에 날아가 미국의 《은혜》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무려 13번이나 입에 올렸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군건한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북의 도발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속에서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맹약대

로 박근혜는 동족의 자주적권리행사, 자위권강화, 《인권》 등을 시시콜콜 걸고들며 대결소동을 벌려왔다.

지어 《한미동맹》을 과대평가하며 《통일대박》, 《북붕괴론》, 《급변사태설》에 매달려 허망한 《흡수통일》의 길로 질주해왔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까지 간다고 박근혜의 부역자들도 여기저기 돌아치며 《북핵문제》, 《인권문제》를 고아대고 《대북공조》를 구걸하는 데 몰두하였다.

《한미동맹》이 우선시되는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실현될수 없고 침략동맹이 강화되는 한 민족의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지 않을수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운명개척을 가로막는 암초의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인것이다.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은 전쟁동맹강화론, 북침핵전쟁론이다.

이른바 《한미동맹》이라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침략전쟁으로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첫걸음을 떼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 세계제패를 위해 유지, 강화되어왔다.

미국이 눈에도 차지 않는 남조선 《정권》에 《동맹》의 감투를 씌워준것은 식민지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략기지로 다지고 남조선군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

한것이다. 침략의 첫 대상이 바로 공화국이고 그 어느 《정권》보다 전쟁돌격대로 앞장선것이 박근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계가 전면배격한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상》을 조선반도에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떠벌이였지만 《키 리졸브》, 《독수리》, 《올지 프리덤 가디언》 등 남조선에서 벌어진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에 미국의 전략핵타격수단을 닦치는대로 끌어들이었다.

북남사이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회담이 벌어지던 2014년에도 미국의 핵전략폭격기가 남조선의 지도상공에 날아들어 핵타격훈련을 벌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노력이 찬물을 끼얹은것은 잘 알려져있다.

박근혜가 파면된 지금도 역도의 공범자들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향상을 위한 년례적훈련의 간판밑에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하고 기본도 핵무력까지 동원하여 동족을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 무력충돌을 일으킬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기지를 선제적으로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한다는 《4D작전계획》 등의 전쟁계획에 따라 《선제타격》, 《참수작전》, 《상륙작전》 등의 북침핵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을 권력유지와 동

족대결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빠속까지 친미》라고 자랑하던 리명박 《정권》도 저어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여 군사 《주권》을 미국에 영구히 넘겨바쳤으며 남조선인민들과 조선반도주변국들도 철저히 규탄하는 미국의 《싸드》를 남조선에 강제배치하기 위해 발악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총탄이 오고 가는 전쟁집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극대화되였다.

이 모든것은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을 떠들며 전쟁광란의 치마바람을 일으켜온 박근혜와 그의 친미보수 《정권》이 몰아온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미국에 의해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남조선군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어 미군과 함께 핵불소나기의 첫세례를 받고 개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다.

보는바와 같이 《한미동맹우선론》, 《한미동맹강화론》은 미국상전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친미사대와 노예적굴종, 버릴수 없는 동족대결, 전쟁광기로 얽혀진 추악한 계변이다.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이 침략적이고 예속적이며 전쟁으로 출달음치는 미국과의 《동맹》을 반대배격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정혁

제 울음소리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불평과도 같이 미련한 작자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외세의 력밑에 붙어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호전광들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이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의 행정부가 《대북제재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표하자 때를 만난듯이 《북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니, 《단호한 경고메세지》니 하며 상전을 추어올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침압살야망을 이루려는 미국의 전략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침략의 무리들과 맞장구를 쳐대며 외세의 옷깃에 매달려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병적인 악습이다.

전쟁을 막고 민족을 지켜주는 자위의 보검을 눈에 든

가시로 여기며 동족의 숨줄을 막아보려는 제재따위에 쌍손을 들어 환영하고있으니 그야말로 광중이다. 제 땅에 전쟁을 불러오는 침략자의 손을 《은인의 손》으로 덥석 잡아쥐는 남조선호전광들은 대세도 판단할줄 모르는 열간망둥이가 아닐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광들은 서울을 행각한 미래평양합대사령관을 만나 그 무슨 《위협》을 역제한다는 구실밑에 《군사협력증진방안》과 《한》미일3각군사공조를 모의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북침핵선제타격준비를 다그치고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구축에 박차를 가하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의판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북침핵선제타격훈련을 벌리려는가 하면 미국, 일본과 함께 《북의 잠수함위협》에 대처한 반잠수함훈련을 벌려놓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 일본과 야합하여 련합대잠수함훈련을 빼

이렇게 놓고볼 때 동족을 모해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할수 있다면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백년숙적이던 가리지 않고 마구 손을 잡는 남조선호전광들이야말로 민족반역의 무리가 분명하다.

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여 힘으로 공화국을 어찌보려는것은 돌을 던져 달을 떨구어보려는 것과 같이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군사적광기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의 문전에서 전쟁광신자들에 의해 강행되는 북침핵전쟁연습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그것은 무진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려는 백두산강군의 의지를 더욱 역세게 해줄뿐이다.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미친듯이 날뛰는 남조선호전광들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본사기자 황진옥

이렇게 놓고볼 때 동족을 모해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할수 있다면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백년숙적이던 가리지 않고 마구 손을 잡는 남조선호전광들이야말로 민족반역의 무리가 분명하다.

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여 힘으로 공화국을 어찌보려는것은 돌을 던져 달을 떨구어보려는 것과 같이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군사적광기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의 문전에서 전쟁광신자들에 의해 강행되는 북침핵전쟁연습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그것은 무진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려는 백두산강군의 의지를 더욱 역세게 해줄뿐이다.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미친듯이 날뛰는 남조선호전광들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본사기자 황진옥

## 주관배격받는 동족대결정책

최근 박근혜라력으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보수패당이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을 겨우 억누르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다음이 《정권》에까지 그대로 연장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북핵위험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외교안보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는 유엔결의에 저촉된다》, 《대북제재와 압박강도가 느슨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상전에게 더 바짝 달라붙어 《대북압박공조》강화를 구걸하고 《싸드》조기배치를 서두르는 등 다음 《정권》이 대결정책을 바꾸지 못하게 사전에 《대못》을 박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정계자들은 야권 《대선》 후보들이 《해빙정책》의 재추진을 주장하는것을 두고 《북의 비위를 맞추겠다는것이다》, 《국민은 좌파급진적인 야권의 집권을 우려하고있다》, 《이제라도 리성을 찾

고 친북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기존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격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발목을 미리 비틀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한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우익보수언론들은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여 현 《대북정책》이 뒤집혀지면 《한미동맹》이 크게 약화되어 《안보위기》와 《국민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

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진보민주세력이 집권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가려는 경우 리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살판치던 시대가 끝장나게 된다는 극도의 위기의식에 휩싸여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절망적인 몸부림에 다른것이 아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대결정책을 다음이 《정권》에로 연장하여야만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분렬매국체제를 유지하며 부정부패한 《기득권》을 그대로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다. 이런 흉악한 속심밑에 박근혜년의 파멸과 함께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동족대결정책을 한사코 고수해보려고 날뛰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역도년과 함께 당장 청산해버려야 할 적폐세력,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무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은 북남관계파괴의 주되는 요인이며 관계개선의 암적존재이다.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종착점은 전쟁뿐이다.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더는 회복될수 없는 사정에 처하고 이 땅은 핵참화의 전란에 휩싸이게 된다. 2015년의 8월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고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에 역행하면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고 종당에는 박근혜와 같은 비참한 종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혜성



# 악녀를 지옥으로 데리고가는 수자 3

세계적인 조롱거리, 망신거리로 된 이남의 박근혜가 력사의 무덤속으로 가고있는 지금 그를 지못미 따라다니는 수자가 있다. 다름아닌 수자 3이다.

박근혜가 검찰의 구속령장을 발부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것은 기이하게도 3이 세번 붙은 3월 31일 새벽 3시였다. 국민의 혈세로 갖은 화려한 옷단장을 했던 그 몸에 걸치지 않으면 안된 죄수복의 수번호도 503으로서 수자 3이 따라붙어있다.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도 감옥에 갇히게 된 순위도 살인마, 군부독재자로 악명떨친 전두환, 로태우에 이어 3번째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실통한지, 기세등등하던 《청와대녀주인》 박근혜를 한순간에 서리맞은 호박잎신세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제 주인공들 도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즉 3명의 악녀들이다. 두명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새끼악녀 정유라는 제 에미가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 지 않겠다고 단마르크에서 뺨칠대기를 하고있다. 설사 이역의 감옥에 갇혀있다 한들 이남에 잡혀들어가 민중의 돌팔매질을 당하며 개죽음을 당하기 싫다는 뜻일것

이다. 동서고금에 일찌기 볼수 없는 특대형 정치추문사건에 이남민심의 분노는 폭발하여 초불이 여기저기서 수개월째 타올랐었다. 그 절정은 지난 한해가 저물어가던 12월의 세번째되는 날에 진행된 230여만명이 참가한 초불집회였다.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눈앞에 두고 이남의 초불민심이 한복소리로 웨친것도 《박근혜 없는 봄》, 《박근혜없는 3월》이다. 결국 민중의 거센 요구와 노도와 같은 항쟁의 물결에 의해 박근혜는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남의 경향각지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지고 폭죽이 터져올랐던 력사에 기록될 그날은 3월 10일이였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3월 30일에 박근혜는 초책한 몰골로 법원에 끌려가게 되었다. 다음날 새벽 구치소에 수감됨으로써 박근혜는 탄핵당한지 21일(2와 1을 합치면 3)만에 철창속에 갇힌 몸이 되었다.

이남에서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탄핵의 주요 근거의 하나로 삼은것이 삼성그룹에게서 298억원대(약 300억원)의 퇴물을 골격환 죄이다. 박근혜가 파면당한 후

1만 3 000(배에 차있는 몰과 진멸 포함)의 《세월》호가 떠올랐다. 이남사람들이 제일 분노해하고 박근혜를 제일 끈질기게 몰아넣은것도 《세월》호참사때의 《7시간행적》이다. 박근혜는 저하나만의 치부를 위해 300여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비롯한 민중의 목숨을 바다속에 서슴없이 내던졌다. 그 원혼들이 물위에 떠올라 결국 살인악귀를 거꾸로 죽음의 바다속에 처넣은것이리라 해야 할것이다. 탄핵당하고도 아무 죄가 없으며 죄물은 입가에 웃음을 담았던 악녀의 운명에 다시금 조종을 울리며 《세월》호가 떠오른 그날은 실통히도 배가 가라앉은 때로부터 3년만 이였다.

박근혜에 대한 수자 3의 놀라운 《지옥안내》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박근혜는 《북이 3년이면 무너진다.》는 최순실의 달콤한 말에 빠져 남북관계개선의 문에 모두 빗장을 지르고 체제대결, 반북제재압박속도에만 매달렸다. 지어 《홍수동일》망상에 들떠 《통일대통령》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얼빠진 꿈까지 꾸었다. 그러나 망한것은 악녀 자신이였다. 보는것처럼 남잡이가 제잡이된다고 수자 3이 거꾸로 박근혜를 비

참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떠올린것이다.

원래 수자 3은 불행의 수자가 아니라 행운의 수자이다.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이날이때까지 수자 3을 행운을 뜻하는 길수로 정을 담아 불려왔다. 단군조선의 건국신화에도 수자 3이 신성한 수자로 여러번 들어가있고 민족의 오랜 력사와 풍습, 지리에도 행운의 수 3이 많이 깃들어있다. 겨레가 사는 땅, 《한》반도를 대대손손 3천리금수강산으로 부르며 사랑해온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처럼 우리 겨레에게는 행운의 수로 따라다니는 수자 3이 천하악녀인 박근혜에게만은 수치와 고통, 죽음을 안겨주는 불행의 수자로 되고있는것이다.

이남의 민주로총은 박근혜가 구속된것과 관련한 성명에서 《겨우내 초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봄소식》이라고 기쁨을 표시했다. 박근혜 개인에게는 운명의 파멸로 되지만 정의와 진리, 인간다운 참세상을 지향하는 이남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악녀의 감옥행, 그래서 박근혜에게는 수자 3이 저승의 손길처럼 계속 따라다니는지도 모른다.

재오스트리아동포 현은주

박근혜가 구속된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의 부역자들도 갇혀 있다.

지난해부터 있던 최순실은 6일 남부구치소로 이감되었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은 그대로 구치소밥을 먹고있다.

일명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우며 박근혜 《정부》의 《최고실세》로 군림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예술계의 《검은 명단》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수감되었다.

최순실을 도운 《국정》통단의 주범으로 된 안중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에게 퇴물을 심긴 리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8명이 구속되어있다고 한다.

18년간 박근혜를 호위한 《문고리 3인방》은 이번 사건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이전 《새누리당》의 대표 리정현을 비롯하여 친박의 거두들도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다.

박근혜라는 《몸통》이 덜컥하니 팔다리노릇하던자들도 모두 풍지박산이 난것이다.

《법무라지》로 락인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유일하게 빠져있다고 하지만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게이트》의 책임론, 아들의 특혜 의혹 등으로 버르고있어 그의 운명도 다름없다고 한다.

다음 최교광을 잘 대상은 누구인가.

남조선인민들은 일본과의 《위안부합의》나 미국의 《싸드》배치를 박근혜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락인하고있다.

## 나을 차례는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그 첫대상이다.

박근혜의 특대형범죄중의 하나인 백년속적 일본의 반인륜범죄를 무마해주려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자이기때문이다.

선무당 최순실이 조종한 《통일대박》, 《기춘대원군》같은것을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구걸외교》, 《거지외교》를 벌였으니 박근혜와 공범한 그 죄 또한 덮어둘수 없다. 또 박근혜의 외교, 안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까지 하였으니 구속은 마땅하다.

《청와대 핫바지》로 불리워온 통일부 장관 홍용표도 그 최악의 벌에서는 벗어날수 없다.

또 다른 대상이 있다.

국방부 장관 한민구, 박근혜가 미국의 강압에 놀아나 《싸드》를 끌어들인데 부림소역할을 한 죄만으로도 충분하다.

최순실의 《북풍비론》에 홀려온 박근혜의 지휘봉에 따라 동족대결의 전쟁연습에 몰두했으니 그 죄도 이만저만 아니다.

초불민심은 박근혜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제가 싸놓은 깨끈한것에 물러앉은것은 응당하지만 그 오물 즉 남조선인민들이 《적폐》라고 하는 악정의 《정책》들과 피해들을 깨끗이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청산하자면 박근혜의 공범들, 부역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함께 청산해야 한다고 남녘의 초불민심은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 초불민심을 우롱하는 간상배들의 추태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 정치세력들사이에서 치열한 선거경쟁이 벌어지고있다.

가관은 박근혜 《정권》의 공범자당, 부역자당으로서 《자유한국당》과 거기에서 떨어져나온 《바른정당》이 박근혜 《정권》과의 《차별화》를 운운하며 《보수새판짜기》로 홀어진 보수세력을 끌어당겨 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민심을 우롱기만하여 보수패당이 다음번에도 권력을 쥐어보려 하는 더러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박근혜 《정권》에 파멸을 선고한 초불민심이 바라는것은 파쑈독재와 친미사대, 동족대결의 범죄적인 정책들을 끝장내고 정의와 진리가 살아숨쉬는 새세상을 안아오는것이다. 하기에 남녘의 각계층은 시종일관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박근혜사당》, 공범당에 불과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것들이 《대선》 후보를 내세운다, 보수세력재편성을 한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으니 여론을 또 한번 기만하려는 낫가죽 두꺼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보수패당이 할 일은 박근혜를 도와 갖은 범

죄를 저질러온 과거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스스로 당을 해체하여 정계무대에서 물러나는것뿐이다. 할 일은 안하고 눈속임수를 쓰면서 《대선》에 뛰어들어보았잖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일밖에 없다.

지난 3월 25일 박근혜 탄핵이후 두주요일만에 다시 치러진 민심의 초불투쟁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보수정권교체》와 《국민이 주인이 된 새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초불은 멈추지 않는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바로 지금의 남조선정국을 대하는 남조선민심이 담겨져있다.

초불로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한 민심을 외면하고 우롱하면서 권력야욕에만 들떠 돌아가다가는 역도와 같은 비참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춘

얼마전 남조선보수당은 미행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행정명령》이라는것을 두고 《제재압박강화를 통해 북이 비핵화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단호한 경고메세지》라고 떠들어댔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황교안은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식 추념사》와 《국무회의》라는 데서 《북의 전략적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느니,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느니 뉘나 하고 뉘쳐댔다.

이것은 외세의 옷설에 매달려 동족을 해치려는 병적악습의 발로이며 박근혜탄핵으로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진 보수패거리들의 단말마적악담질에 불과하다. 특히 황교안의 악담질은 정의의 반미반파쇼인민항쟁에 떨쳐나섰던 제주도인민들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

며 때와 장소도 가리지 못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박근혜역도의 특등공범자의 도발적망발이 아닐수 없다.

인류의 흉악한 원수들이 정의와 진보를 말살하고 예측과 불평등을 강요하기 위해 제재라는

것을 고안해낸 때로부터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한 나라, 한 민족을 대상으로 그 강도와 실행수단, 그 적용수법과 리행기간에 있어서 그렇듯 구악하고 끈질기고 비렬한 전례를 모르

고있다.

공화국이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전쟁공갈로부터 부득불 자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때마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합법적리리를 행사하고 자주적인 존엄을 수호하려는 정당행위를 그 무슨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류의 안전을 해

치는 《도발》로 오도하면서 형형색색의 제재들을 조작해냈다.

이번 미행정부의 《대북제재행정명령》이라는 것 역시 그러한 제재놀음의 일환이다.

미국에서 2008년 이후 공화국을 상대로 한 《제재시행령》인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것이 수차례나 발동되었지만 결코 공화국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오히려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수치스러운 파산을 면할수 없었고 공화국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

박근혜역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감옥행을 한것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천하의 악녀에게 내린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징벌이다.

지금 남조선의 시민단체들과 언론,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탄핵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외교, 안보분야에 미친 박근혜(정부)의 폐단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 역

도년이 추구해온 사대매국적이고 동족대결적인 외교, 안보 《정책》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박근혜의 부역자, 역도년과 함께 매장되어야 할 순장자들이 아직도 동족대결의 악행을 돌고있는것은 림종에 이른자들의 가련한 몸부림이며 단말마적인 발광일따름이다.

그 어떤 야만적인 초강도제재나 전대미문의 압살책동도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최광혁



# 식민지고용군에 만연되는 전쟁공포증

3월 28일 남조선의 《KBS》방송이 피뢰록군의 한 공병부대에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병을 군사작전에 투입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공병련대의 한 중대장은 2013년 《국방일보》 기고문에서 지뢰제거작전 수행전에 사병들의 신청과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이것은 피뢰록내에서의 군사독재식군기세우기와 무지막지한 강패식병영문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에 환장한 역적무리의 극악하고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다.

미군의 군사체제와 가치관을 도입하고 구일본군대의 《혹독한 규율》을 그대로 적용한것으로 하여 피뢰군에는 조작초기부터 각종 기합과 폭행, 탈영, 명령불복, 퇴물행위와 같은 군기문란 현상이 성행하여왔으며 이에 그것이 만성화되어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다.

비인간적인 기합과 집

단구리를 비롯한 폭행이 더욱 란무하면서 그 고통을 못이겨 탈영자들이 꼬리를 물고 자살자는 계속 늘어나 사병들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상급부위 좌측이겠다.》는 소리가 왕왕 튀어나오고있다.

뿐만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공하며 상관을 폭행하여 각종 징계를 받은 사병들과 하급장교들은 박근혜집권 첫해에만도 2만 8 200여명에 달하였다.

미군의 총알발이, 대포

밤에 불과한 피뢰군사병들은 미국의 사측밀에 매일 같이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 생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 시달리고있다.

전쟁공포증에 사로잡혀있는 남조선청년들속에서 군기피, 조기제대풍조가 농후해지고있다.

일부 청년들은 멀쩡한 신체부분을 수술하여 징집대상에서 제외되고있으며 피뢰군에 징집되어도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제대되려고 하고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피뢰군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류학이나 실습의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려는가 하면 돈냥이나 있는 녀성들은 다른 나라 국적 획득을 위해 외국에서 해산하는 《원정출산》을 택하고있다.

군징집을 반대하는 《입대거부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있는 형편에 이 해마다 징집자들이 줄어가고 부족한 인원으로 채우지 못하는것이 피뢰군의 현 실태이다.

정계와 언론계에서도

# 초불민심을 짓밟는 미국의 날강도적요구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탄핵으로 보수 《정권》이 붕괴되고 이로 말미암아 조기 《대선》이 진행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각 정당들을 비롯하여 각양각색의 정치세력들이 저저마다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고 민심획득을 위한 여론전을 벌리며 선거경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어 박근혜의 부역자당, 공범자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나서 저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지지표를 구걸하며 과열치게 높아대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의 파면과 함께 《정권》 교체에 바라는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진보개혁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머리를 들이밀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해 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는 것이다.

지난 2월초 미국 대서양리사회 리사장이 비밀리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선거후보와 접촉하면서 그의 《대미, 대북관》을 《검중》하는 놀음을 벌리고 그 이후 미국 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남조선의 주요야당인 물들을 만나 《싸드》배치문제, 《북핵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내리막이 위해 분주히 돌아치려는 이들을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

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하급관리에 불과한자들이 남조선정치관을 떡주무르듯 마음대로 주무르고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미국이 《집권가능성이 있는 후보들과 정당들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주입》시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한편 미국은 백악관과 행정부의 고위인물들과 국회의원, 언론들을 내세워 남조선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북제재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싸드》를 배치하여 다음 《정권》이 그 뒤를 이을수 없게 하려고 하고있다.

이것이 남조선의 다음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동족대결과 친미사대정책을 답습하게 하고 저들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남조선에 영원한 식민지로 들어주고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서 70년이 넘도록 남조선에 강점하고있는것은 한번 입에 물은 고기덩어리를 순순히 내놓지 않는 승냥이본성 그대로이다.

남조선에 거점으로 하여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침략본성과 야심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 영구히 타고앉아 사실상 저들의 한개 주로 만들려 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국의 로골적인 개입과 간섭책동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의사를 짓밟는 날강도적행위이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은 단순히 역대년 개인에 대한 파면이 아니라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정책과 같은 악녀가 저지른 온갖 반인민적, 반동원적죄행에 대한 치욕은 분노의 폭발이며 빼앗긴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의 분출이다. 1700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한 초불시위투쟁에서 《〈싸드〉 배치 반대》, 《미군철출》, 《북침전쟁훈련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들이 힘차게 울려나온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식민지노예, 총알받이의 운명을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인

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있는 원흉이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다.

오늘 남조선에 펼쳐진 비극적현실은 친미사대와 굴종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살길이고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침략적인 외세를 하루빨리 몰아내는것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 통일의 길과 직결되어있다.

세기가 자주를 지향하는 21세기인 오늘까지도 남조선인민들이 미국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이러한 민족적수치와 고통은 더이상 지속될수 없다. 70여년간에 걸친 민족분열의 고통과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한시바빠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 공범자들의 부질없는 발악

남조선에서 보수세력이 재집결을 꾀하고있다. 《박사모》, 《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박근혜의 구속에 반발하며 《박근혜를 수호하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고대하며 현일 집회, 시위를 벌리는가 하면 깨어져버린 박근혜사당인 《새누리당》을 다시 내왔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청산》의 간판밑에 《박근혜흔적지우기》 놀음을 벌리며 민심을 얻어보려 교활하게 움직이고 개와 고양이처럼 다룬다. 지난날에서 벗어나 《대선》을 위해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 특히는 《안보위기》, 《중북》소동으로 흩어진 보수층을 그러모으려고

날뛰고있다. 박근혜의 구속을 보수세력들의 기회로 삼아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어리석은짓이 아닐수 없다. 그 무슨 《박사모》나 《엄마부대》나 하는 보수단체들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모두가 박근혜의 공범자, 부역자이며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대상들이다. 《박사모》, 《엄마부대》 등은 그 단체의 대표라하는자들이 실로한것처럼 박근혜가 던져주는 돈을 받고 《관계대모》에 내몰린 박근혜의 부역자, 치마부대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전 《새누리당》이라는 한뿌리에서 갈라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무리들로서 그들이 박근혜의 특대형 범죄사건들을 음모로양으로 보좌해왔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자들이 보수재집결을 이루어보려고 획책하고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박근혜의 구속으로 보수진영이 허물어지게 되

자 종말의 구렁렁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수의 재집결으로 기반을 다져 보수재집결을 이루어보려고 발악하게 된것이다. 하지만 《박사모》나 《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박근혜수호》를 부르짖을수록 박근혜의 부역자들을 악녀와 함께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는 민심의 분노한 함성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박근혜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고있지만 남조선민심은 박근혜악정의 공범자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보수세력의 그러한 망동은 박근혜 《정권》과 그 악정을 되살리려는 어리석은 흥제이고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새 정치, 새 생활을 원하는 민심과 대세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에 역행하는 남조선보수세력은 구태의 악습과 악정을 부활시키려는 그 죄행만으로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 죽은 송장을 살리려는 어리석은 망동

《불의와 맞서 끝까지 싸우라.》 민심의 현장인 초불시위에서 울려나왔던 말이 아니다. 박근혜가 수감된 남조선의 서울구치소정문앞에서 울려나온 말이다. 마치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초불민심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불의인듯 《탄핵무효》, 《구속반대》를 고아대면서 극우보수세력들이 광기를 부려대고있는것이다. 《박근혜를 감옥에서 건져내자.》, 《마지막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피이한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구치소를 향해 절을 하고 통곡하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는 《박사모》며 그 무슨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너드러질 것을 해대고있는 《근혜동산》,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국민대회》라는 것을 열고 《중북역도들이 작당해 나라를 망치고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고있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패거리들의 추태... 그 악녀에 그 《박사모》, 《근혜동산》 등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처음 보는 일도 아니다. 바로 얼마전까지도 몇푼의 돈에 팔려 거리로 무작정 뛰쳐나와 극단적인 폭행과 폭력적인 언사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조성시켰던 보수세력들이었다. 라당한 론리나 주장도 없이 막말과 폭언, 폭행 등 극단적인 광증을 부려대던 이 인간쓰레기들이 민심과 정의의 판결을 《불의》로 매도하며 항의추태를 부리고있으니 경악할 일이다. 정의가 민심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리치이다. 하물며 박근혜는 민심이 파멸을 선고하고 탄핵한 회세의 악녀이다. 죄지은자 최고량을 차는것은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무효》, 《구속반대》를 부르짖는것은 민심의 요구에 거역해나서는 부질없

는 망동이다. 그 대역죄인을 감옥에서 건져낸다니,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다느니 하며 해피한 추태를 부려대고있으니 이 보수세력들이야말로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언론들도 《친박단체들의 단말마적발악을 보여주는 사례》, 《죽은 송장을 살려보겠다는 어리석은짓》이라고 조소규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지금 박근혜의 구속에 반기를 들고나서는 극우보수세력들의 망동은 보수패당내부에서도 호응은커녕 혐오감만 자아내고있다. 한층도 안되는 극우보수세력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은 되돌려세울수 없으며 역도와 함께 파멸의 나락에 떨어질 가련한 운명을 구제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련옥

##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5.18 학살》

최근 남조선에서 《세월》호선체인양을 계기로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하루도 걸리지 않아 인양할수 있는것을 박근혜 《정부》가 왜 3년동안이나 방치해두었는지 리해할수 없다.》, 《온갖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우고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난다.》고 규탄하면서 사망자수승과 침몰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처벌을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다. 특히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투쟁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대참사》,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5.18 학살》》, 《구조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것》이라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역적패당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와 집회를 벌리고있다. 《세월》호참사후에는 《실무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정무적판단이 필요하다.》, 《시신을 인양하면 《정부》 책임론이 커진다.》고 떠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

론이 확대되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 하고있다. 이것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저지른 《세월》호대참사의 범죄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구차한 발악이다. 《세월》호참사는 우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철두철미 박근혜 역도와 보수패당에 의해 산생된 고의적인 인재, 특대형참극이다. 《세월》호침몰당시 청와대는 현지에 출동한 해양경찰에게 침몰현장을 촬영하여 올려보내라고 지시하여 그들이 구조보 다 촬영에 급급하게 만들었다. 특히 박근혜는 수백명의 생명이 애타게 구원을 호소할 때 TV를 통해 침몰하는 배를 보고서도 무려 7시간동안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청와대판에서 드러누워 더러운 몸뚱아리를 치닥질하며 제 불장만 보았다.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행위나 다를바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세월》호참사후에는 《실무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정무적판단이 필요하다.》, 《시신을 인양하면 《정부》 책임론이 커진다.》고 떠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

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세월》호인양을 각방으로 지연시켰다. 피해자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 《부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로 모독하다 못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을 《제2의 광주 폭동》으로 매도하며 경찰관들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던것이 바로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이었다. 인간의 피와 열이라고는 령끝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랑혈한인 박근혜와 보수패당의 추악한 범죄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죄에는 벌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더우기 수백명의 아이들을 바다속에 수장시켜 생육음시킨 그 천인공노할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지금 온 광주시를 피바다에 잠겼던 살인자 전두환이 령사를 외곡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해나서는 자서전이라는 것을 내놓아 각계의 울분을 자아내고있는것도 살인악당들에게는 자그마한 관용도 필요없으며 정의와 령사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깨우쳐주고 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 4.3 봉기의 정신을 이어 악폐를 반드시 청산하자

### 남조선로동자들이 주장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4.3인민봉기 69년에 즈음하여 2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 2500여명의 로동자들이 제주시청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로동자, 국민의 힘에 의하여 박근혜가 파면되었지만 두렵게 쌓인 악폐를 청산하는것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력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지금도 친일파가 권력을

들어쥐고 로동자, 민중우에 군림하고있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69년전 제주도민중이 목숨을 걸고 전개하였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싸드》배치저지투쟁과 4.3봉기희생자 명예회복, 봉기탄압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민주로총이 설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초불을 통해 승리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것이 너

무도 많다고 밝혔다. 쌍룡자동차회고, 룡산참사, 《세월》호참사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로동자의 힘으로 해결하고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책동을 저지파란시키고 그들은 웨쳤다. 《싸드》배치저지투쟁과 4.3봉기희생자 명예회복, 봉기탄압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민주로총이 설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초불을 통해 승리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것이 너

결의문은 친일파들과 분렬체제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싸드》배치철폐, 제주군사기지화저지를 위해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에 앞서 1일 4.3인민봉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로 만신창이 된 강정마을에로의 기행과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사기자

# 고려청자기로 본 우리 민족의 우수성

일찍부터 뛰어난 예술적능과 슬기를 지닌 민족으로 이름높은 조선민족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청자기를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원시시대 때 출현한 토기는 고대시기에 높은 소성기술이 확립되면서 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도기는 중세기에 자기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고려초기에 청자기가 생산되었다. 특히 청자기는 11~12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13~14세기에도 그 우수성을 살리면서 발전하였다.

고려청자기는 표현형식에 따라 순청자기, 새김청자기, 상감청자기 등으로 구분한다. 순청자기는 고급려청자기제작초기에 보급된 도기로서 결면에 아무런 장식도 없이 청자기유약만 입혀 구운 자기이다.

새김청자기는 결면에 오목새김, 돌출새김, 뿔음새김의 방법으로 무늬를 장식한 자기이다. 상감청자기는 소지바탕면을 파고 다른 색깔의 소지로 메꾸어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

으로 장식한 자기이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청자기의 우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형태, 색, 무늬장식이 독특한 것이다.

도자공예에서는 그 형태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창조한 민족의 정서와 미감, 취미와 생활풍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고려청자기의 형태를 이른 문곽선들은 부드럽고며 활동적이다. 또한 형태가 다양하고 참신하다.

특히 기발한 착상에 의해 형태구성이 이루어진 고려물상형청자기는 실재한 어떤 물체를 보는 듯 한 생동감을 주며 하나하나의 요소로 다 실용적인 구조와 잘 어울리게 형성하였다.

고려청자기의 색은 이미 잘 알고있는 청색 혹은 자연속에서 쉽게 찾아보게 되는 색채와 같지 않은 신비로운 색을 띠고있다. 일명 비색자기라고도 하는 고려청자기는 고려자기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고려청자기를 보물처럼 귀중히 여

기는 리유도 독특한 비취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청자기색은 예로부터 밝고 선명하고 은근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생활감정과 취미, 기호를 반영하고있는 예술적으로 완벽한 색채라고 할 수 있다.

고려청자기의 장식무늬들은 우리 나라의 산과 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식물 등이 단독무늬, 연속무늬로 형성되어있다.

마치도 수정같이 맑은 물속에서 하얀 차돌을 들여다 보는 듯이 청자유약속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장식무늬는 형태, 색과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상감장식수법은 다양하지만 흔히 보게 되는 것은 동그마미안에 꽃이나 학을 그려넣어 표면에 골고루 배열하고 그의 공간을 구름, 들국화로 장식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고려명 비색자기라고도 하는 고려청자기는 고려자기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고려청자기를 보물처럼 귀중히 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청자기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계승발전되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한 도자기 공장들을 지체없이 복구하도록 많은 자금을 돌려주시였으며 공장들을 찾고찾으시어 고려청자기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수대창작사에 도자기창작단을 내오도록 하시고 창작에 필요한 설비와 기공구 등을 현대적으로 보강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평양미술대학(당시)에 공예학부를 내오는 것과 함께 고려성균관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도자공예창작기관들에 보내주어 고려청자기창작과 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오늘 고려청자기는 날로 더욱 개화발전하는 주체미술의 자랑찬 전성기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온 세상에 더욱 긍지높이 과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민족문화유산들 가운데서 병서류의 민족고전들 역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중에는 15세기 전반기에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주요병서로 리용된 《력대병요》도 있다.

《력대병요》는 1452년에 당시 문인이며 봉건관료였던 정린지, 리석형 등이 편찬하였고 그후 성삼문, 박팽년 등이 개작하여 13권 24책으로 완성된 병서로서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중요 전쟁, 전투기록들을 추려서 묶은 책이다.

많은 역사책들 가운데서 필요한 내용들만을 뽑아 기록한 《력대병요》는 봉건통치배들의 군사에 관한 정사에 도움을 주고 봉건국가의 군사지휘관들을 교육요양할 목적으로 편찬되고 리용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주요 병서였다.

《력대병요》에는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 나라에서 있는 23차례의 전쟁과 이웃나라에서 진행된 230여차례의 전쟁력사사실들이 정연한 체계속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4세기부터 14세기말까지의 력사적기간 북방에 존재하였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들이 감행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중요 전쟁, 전투기록들을 추려서 묶은 책이다.

《력대병요》에 기록된 우리 민족의 국가들이 북

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진행한 전쟁관련사료들 가운데서 세나라시기의 전쟁사료가 7개, 고려시기의 전쟁사료가 16건이다.

《력대병요》에 수록된 사료들은 우리 겨레의 반침략투쟁사연구와 중세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연구하고 소개선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치있고 귀중한 사료들이다.

《력대병요》에는 편찬자들의 시대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반침략투쟁의 승리가 일부 《이름》난 판료들이나 장수들의 지휘능력에 요인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면서 우리 인민의 조국수호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바탕으로 두었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지 못하고 또 사대주의적내용서술을 하는 등의 제한성도 있다.

로 광혁

## 민족고전 《력대병요》

지의 력사적기간 북방에 존재하였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들이 감행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중요 전쟁, 전투기록들을 추려서 묶은 책이다.

《력대병요》에 기록된 우리 민족의 국가들이 북

## 간기능을 높이는 음식료법

간기능은 음식과 스트레스에 크게 관계되는데 기름진 음식, 술, 정신적 인자는 간기능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 간기능을 높이는 좋은 음식료법 몇가지를 소개한다.

—냉이  
냉이는 식초에 무쳐먹거나 된장국을 끓여먹으며 말리었다가 끓여먹어도 좋다. 지방간환자에게 아주 좋다.

—부추  
에로부터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하였다. 부추는 간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것외에 대, 소장을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며 인체의 기능을 복돋아주는 작용도 한다. 부추로 죽을 쑤어먹거나(약한 불에 흰쌀과 같이 섞어) 사과즙과 같이 섞어 먹을수도 있고 즙을 내어 먹어도 좋다.

—배식초졸임  
간이 약한 사람들에게 쓰면 매우 좋다. 배식초졸임은 껍질을 벗긴 배의 씨를 파내고 얇게 썰어 식초에 담그어서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1~2일후에 1회 200g씩 1일 3회 빈속에 먹는다.

—오미자차  
간이 약하여 대변이 묽고 흘어지는 사람들이 쓰면 좋다. 오미자차는 말린 오미자 80g을 물 500ml에 넣어 달여서 차형태로 하루에 여러번 마신다.

—호박과 홍당무는 약해진 간의 저하된 비타민대사를 강화시켜준다.

본사기자



## 유모야 남편생각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시내에서 돌아온 남편이 안해에게 말했다.

《난 오늘 이상하게도 거리에서 그냥 재채기를 했어.》

《그건 내가 집에서 계속 당신생각을 했기때문

이예요.》 안해가 말하였다.

하루는 남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위험한 외나무다리를 건느는데 또 연거퍼 재채기가 나는바람에 다리에서 떨어질뻔

스럽게 하였다.

(아니, 저게 뭐가?!)

억기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똑바로 지켜보았다. 우로부터 3층인지 4층인지 허물어져내린 탑우에 두 발을 벌리고 선 뚱뚱보습이 시누렇게 번쩍이는 항아리만큼 큰 불상을 안아 들고 입이 귀밑까지 돌아갔는데 그아래에서 갈찬 놈들이며 《누런 바지저고리》들이 저저마다 그

## 사화 다시 찾아온 경천사 흰대리석탑 (2)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제발 풀어줘요. 날 좀 풀어달라요.》

안경진 난쟁이가 또 도끼눈으로 눈짓을 하자 칼찬 그자들은 억기의 락을 짝 부여잡고 그의 입에 걸레몽치같은것을 우악스레 쑤셔넣었다.

《우—우—》

억기는 너무도 놀랍고 겁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번에는 안경진 난쟁이가 전혀 알아들을수 없는 말로 무엇이라고 고아내자 《누런 바지저고리》들이 석탑에 와르르 달려들었다. 그자들은 석다리들레 여러개의 긴 사다리를 세워놓고 개미떼처럼 앞을 다루며 그우로 기어올라갔다.

억기는 어느새 무서운 것도 다 잊고 석탑에 새까맣게 달라붙은 낫선 그자들을 자세히 지켜보았다. 그자들은 분명 억기가 가끔 할아버지를 때려대 경정에 들어갔을 때 본 왜놈쪽발이들이 확신했었다. 아닐세라 이날 경천사

현대리석탑에 달려든 이 괴한들은 다름아닌 섬나라오랑캐들이었고 금테안경을 낀 난쟁이놈은 나까다라는 놈으로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개성일대에서 공민왕릉이며 숙종왕릉을 비롯한 여러 왕릉들과 고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조선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약탈해간 특급범죄자였다.

마침내 네댓길이 넘을 석탑의 맨 꼭대기에까지 기어올라간 《누런 바지저고리》들이 13층탑몸에 바줄을 칭칭 동여맸다.

(아니, 저놈들이 어찌자 고 석탑에 올라가 바줄을 동여맬까?)

억기는 영문을 알수 없어 뿔어지게 그놈들을 지켜보았다.

이때 안경진 난쟁이놈이 또 뭐라고 고향을 질렀다. 그 소리에 《누런 바지저고리》들이 사다리에 몸을 싣고 소리를 치면서 바줄을 끌어당겼다.

땅바닥으로부터 층층이 세면 13층이고 3층기단으

로부터는 10층 되는 맨 위의 제일 작은 탑몸이 바줄에 묶이운채 뚱뚱 떠서 서서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이어 선두마차에 실리였다.

그것을 본 억기는 세차게 몸부림쳤다.

(저놈들이 석탑을 실어 가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빨리 할아버지랑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야겠는데...)

《할아버지!...》 하고 억기가 온몸의 힘을 모아 소리쳤지만 입을 틀어막혀있는지라 겨우 우—우— 하는 소리만 새나올 뿐이였다.

10층탑몸에 이어 9층탑몸도 뚱뚱 떠내려와 다음 마차에 실리였다.

안경진 난쟁이놈이 짹 짹 큰소리를 치며 돌아치고 《누런 바지저고리》들은 정신없이 탑몸을 뜯어내려 마차에 싣느라고 비지땀을 줄줄 흘리였다.

《우와—》

갑자기 계절스럽게 터치는 낫선 놈들의 괴이한 함성이 억기의 귀를 소란



것을 안아보자면서 두손을 내밀고 뉘뉘 고향을 질러대고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땅!— 하는 귀청을 켜는 듯싶은 야무진 쇠소리가 팔안을 울리였다.

별안간 터진 그 소리에 게사니때마냥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던 놈들이 한몸들이 언어맞은 개새끼들

처럼 순간에 모가지들을 움츠리였다.

안경진 난쟁이놈이 뭐라고 고아내며 공중에 대고 손을 흔들어대는데 그놈의 줄안에서는 자그마한 권총이 그물그물 연기같은것을 토해내고있었다.

땅! 땅!

또다시 야무진 총소리가 팔안을 울리였다. 그 소리에 금불상을 안고 돼지춤을 추던 뚱뚱보도, 《누런 바지저고리》들도, 지어는 칼찬 놈들도 모두 기가 죽어 설설 기였다.

난쟁이놈은 살팽이처럼 나는듯이 석탑에 올라가 뚱뚱보에게서 금불상을 앗아들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석탑을 뛰어내려 마차우에 있는 께깍속에 집어넣었다.

《누런 바지저고리》들

은 다시 석탑에 달라붙었다. 이어 하나, 둘 탑몸들이 허물어내리어져 마차들에 실리였다.

반나마 석탑이 허물어져 내렸을 때 또다시 《누런 바지저고리》들의 짐승소리같은 괴성이 터져올랐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인차 찾아들고말았다.

안경쟁이 난쟁이놈이 석탑우에 뛰어올라 권총을 들이대며 짹 짹 소리를 쳤기때문이었다.

성난 난쟁이놈앞에서 《누런 바지저고리》들은 고양이앞의 쥐새끼들처럼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풀이 죽은 《누런 바지저고리》들은 훌쩍훌쩍 난쟁이를 결눈질하며 만나마 허물어내린 석탑속에서 청자기를 끄집어내었다. 은근하면서도 황홀한 미색이 해빛에 반사되어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청자꽃병이었다. 그것을 본 난쟁이놈의 입이 귀밑까지 찌지였다.

이어 청자단지며 책들, 시누런 자그마한 불상들이 또 탑속에서 나왔다.

칼찬 놈들은 석탑에 빙 둘러선채로 《야!》, 《야!》하고 탄성을 연방 질렀다. 안경진 난쟁이놈은 누가 만져볼세라 소리를 치면서 그것들을 받아 께깍속에 감추었다.

억기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매일 보아온 고색질은 석탑속에 저런 진귀한 보물들이 들어있었다는것이 통 믿어지지 않았다.

좀 있어 3층기단마저 토막도막 해체되어 마차들에 실렸다.

《우와—》

라고난 본성대로 칼부림과 도적질밖에 모르는 섬오랑캐놈들은 이 땅의 귀중한 유적과 보물들을 말짱 훔쳐가지고 괴이한 소리만 남겨둔채 달아나고말았다.

억기는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알수 없어 머리를 흔들며보기도 하고 불을 쪼집어보기도 하였다. 눈을 크게 뜨고 보기를 그 몇번, 아무리 다시 보고 또 보아야 석탑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억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너무나도 갑자기 들이닥친 어마어마한 짐승무리들에 의해 한정신이 나간듯 했던 억기였다.

(아, 이 무슨 봉변이람, 대낮에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서도 대대로 물려온 석탑을 왜것들에게 도적맞히다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무리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 이 일을 어쩌면 좋소이까.)